

장흥군, '20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26일 개막

'치유 통합의학으로 답하다' 주제로 5일간 개최

생태와 치유, 웰니스 관광의 메카 장흥에서 '2025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가 오는 26일 개막한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4회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는 "치유, 통합의학으로 답하다"라는 주제로 30일까지 5일간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다.

장흥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통합의학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전국대학병원, 대학, 의료기관, 단체 등 70여개 기관에서 의료진과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의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제공한다. 박람회는 주제관, 통합의학관, 웰니스힐링관, 건강강진관, 건강음식관, 디지털헬스&의료산업관 등 6개 전시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주제관에선 역대 박람회 히스토리, 미디어아트, 명사 초청 건강 강좌와 토크 콘서트, 장흥 출신 문인 작품 전시가 열린다. 통합의학관은 양·한방 통합의학 진료 체험, 골판이군 검사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마련된다. 싱잉볼, 컬러, 아로마, 테라피 등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웰니스 힐링관과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의료 체험, 인지재할, 스트레스 측정 등의 디지털 헬스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송테라피 공원에서는 산림치유사와 함께하는 어싱길 맨발걷기, 명상 요가 등 참여형 체험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는 특별한 건강강좌가 진행된다. 27일에는 스타강사 김미경의 북토크, 28일은 심리학자 이호선의 마음치유 토크 콘서트, 이어 29일은 방송인 고명환의 인문학 강의를 각각 진행



된다. 이와 함께 26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송가인, 손빈아, 천록담, 강민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27일에는 김산옥, 임재현의 '조선팝이로소이다' 퓨전국악공연과 제5회 손석우가요제의 준결, 정미애, 미스김, 김국환의 축하공연, 28일에는 채향순예술단과 가수 신승태의 특별한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한의학, 양의학, 보완대체의학이 융복합된 통합의학의 본고장 장흥군에 오셔서 통합의학의 새로운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힐링과 다양한 건강체험을 통해 가족들과 소중한 기억을 남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흥군 제공

장성군 삼서면, 20일 잔디 축제 연다

'제2회 장성 푸른들 잔디축제' 권역운동장서 개최

전국 잔디 생산량의 약 40%를 책임지고 있는 장성군 삼서면이 오는 20일 권역운동장(삼서면 대곡리 929-12)에서 '제2회 장성 푸른들 잔디축제'를 연다.

삼서 주민들의 통기타·난타·라인댄스·요가 공연과 '삼서 잔디의 역사' 영상 상영, 수해리 주민들의 노래 공연 등 다채로운 순서들이 관객맞이에 나선다.

전통 가락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줄 송경배 대금 연주자, 퓨전국악 그룹 '올라', 신유식의 색소폰 연주와 가수 최유진·진이랑·정소리의 축하 무대도 축제의 열기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행사 중간에는 오엑스(OX) 퀴즈, 보물찾기 등 관객 참여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잔디밭에서 즐기는 캠핑 체험과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는 '잔디 감성 포토존', 허기를 달래 줄 '먹거리존'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장 한편에는 삼서면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삼서 마을 사진 전시'와 약초 시음도 준비된다.

장성잔디축제위원회 이은수 위원장은 "삼서면이 자랑하는 명품 '장성 잔디'를 널리 알리고, 지역에도 활력을 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방문을 당부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완도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 24일 개최

완도군, '청년의 날 기념행사' 24일 개최

'청춘의 빛, 지금 여기 wando!', 청년들의 미래 향한 도약 응원

완도군은 오는 24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청년들의 화합과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도약을 응원하고 군민과 청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부 기념식에서는 완도에서 꿈을 키우고 도전하는 청년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희망 메시지가 담긴 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공유할 계획이다.

2부 축하 공연은 완도고등학교 댄스팀과 에너지와 끼를 마음껏 보여줄 계획이며 원슈타인, 루나퀸 등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 곳곳에는 청년 공동체 사업 홍보, 진로·취업 상담, 드로잉 캐리커처 체험뿐만 아니라 청년 상가와 장보고 옷장이 참여해 먹거리·디지털·음료 부스 등

이 준비돼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의 날 행사는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자리이다"면서 "많은 군민과 청년들이 함께해 완도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담양군(군수 정철원)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담양에 기부하고 2025년 산 햅쌀 선물 받으세요!"

50명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답례품 추가 증정 이벤트 진행

이벤트는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담양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는 경우 자동 응모된다.

군은 프로그램을 통해 총 50명을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 담양군 인기 답례품

인 햅쌀 4kg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군 공식 누리집 및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이해 담양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중욱 기자



광양시,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양시, 10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광양시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 및 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다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

망) 등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미등록 또는 변경사항 신고 건을 등록·신고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

터 반려동물 출몰이 많은 공원 등에서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물등록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강기 농업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 보호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며, "등록뿐 아니라 외출 시 목줄 착용(2m 이내)과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해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강진군 '캠핑과 함께하는 문화로운 강진' 개최

자연 속에서 즐기는 1박2일 힐링 문화캠핑... 9·10월 두차례

강진군이 '2025 문화가 있는 날 - 구석구석 문화해달' 사업의 하나로 캠핑과 함께하는 문화로운 강진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석문공원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멜 감성테트촌에서 두 차례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가족·연인·친구 단위 참가자를 대상으로 강진의 생태와 문화,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1박 2일 힐링 문화캠핑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역사·문화자원 탐험 비게임 '하멜을 찾아서' ▲참가자가 직접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살림짓기' ▲자연 속 야외 영화 상영 '달밤에 영화' ▲다 함께하는 생태산책과 요가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캠프는 '제로 웨이스트 캠핑존'을 지향,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 활동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참가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강진의 자연과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강진의 자연과 역사적 자산을 즐기면서 동시에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강



진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 소식은 강진문화관광재단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061-434-79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